

## 전도와 기도

사도행전 4:25-31

정윤돈 목사님

여러분은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가? 천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지역 곳곳에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전도를 하지는 것을 넘어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램넛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고통화로 가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램넛 사역을 해야 미래가 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절반이나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서로 모른다. 일본처럼 되었다. 우리 때는 교회 가자고 하면 친구들이 따라왔다. 여름 수련회에 가자 하면 다 가서, 그 다음부터는 다 교회에 나왔다. 그때는 쉬웠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램넛들이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코인노래방을 만들까, 방방장을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다. (웃음) 교회 안에서 놀아야 한다. 밖으로 지금 아이들이 계속 놀러나간다. 그러나 계속 놀러간다고 해도 행복이 없다. 계속 연애해도 행복이 없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먼저 맛을 보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 살릴 수 있다. 그런 램넛 운동이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한국과 세계 교회 살리는 천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되면 언젠가 썩는 시간표가 온다. 준비되면 분명히 문이 열린다. 말씀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있지 않다.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급할 필요는 없지만 내용있게 하면 내용있게 문이 열린다.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현장복음 메시지는 65과, 서론까지 하면 67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 부분은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구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꼭 이야기한다. 제목으로 보면 18개 정도 나온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것이 일곱 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11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복음메시지는 전도현장에서 쓰지만, 전도에 대한 전략과 내용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현장복음메시지는 앞으로 전도를 할 전도자에게 기초를 깔아주는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미래에 전도를 하고 싶는데 기본을 모르는구나 할 때 알려주는 것이다.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육을 하는 교재가 현장복음메시지다. 복음편지 10과는 다락방 메시지의 처음과 끝이다. 그 안에 다 있다. 모든 메시지가 복음편지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적용하는 것이 새생명새생활이다. 이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 왜인가?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로인데, 말씀이 준비된 만큼 문이 열린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현장 다락방과 지교회들은 절대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열 번의 만남을 가지고 사람 바꿔 가면서 계속 해야 한다. 가르치려 하면 안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 메시지를 썼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다락방이 지속될 수 있다. 일주일마다 한 번 성경공부하고 끝낸다 하면, 인내해서 몇 달 견딜 수는 있지만 지속은 안 된다. 그래서 말씀운동이 되어야 한다. 살아 역사해야 한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간증이 되어야 하고 응답이 되어야 하고 성취가 되어야 한다. 현장에 가서 현장복음메시지를 하면서, 동시에 강단메시지를 적용하는 내용을 함께 말해주면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 서론

지난주에 우리가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 (1) 이것과,
- (2) 저것이다.
- (3) 그리고 세상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면 편협해질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절대 편협하지 않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배 드렸겠는가. 요셉이 교회 갔는가. 구약예배 갔는가. 안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다 정복했다. 우리가 주일성수하는 것은 당연한 시간표다. 우리가 틀에 너무 갇혀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오늘이 잠실에서 신천지 대

회를 하는 날인데, 오늘 출석 안 한 분들은 조사할 것이다. (웃음) 우리는 이단을 개종시켜서 살려내야 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 있다. 얼마나 불쌍한가. 결국은 이만회가 이긴 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거에 세운 본부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만회가 거기 임하면 회복된다고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20만 명이 넘어갔다.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잘 배워야 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을 견져낸 것처럼 전문적인 영적 싸움에도 승리해야 되겠다. 중독자들까지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로 공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 십일조, 율법, 당연한 것, 예배, 찬양, 절기 행사, 구역예배, 그런 것들이다.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로컬적인 것, 파라적인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총회는 로컬이고, 다락방운동은 파라다. 총회는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없다.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겠는가. 내 생각에는 우리도 총회장 한 명 뽑으면 교황처럼 평생 하라고 하고, 뭔가 문제 있으면 투표해서 바꾸고 그러는 게 어떨까 싶다. 천주교는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말도 못 하는데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일관성 있도록 계속 하게 만드는 것이 파라다. 램넛대회를 맡은 사람이 10년 쯤 하나까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한다. 구역장과 권찰 역할을 해야 한다. 다락방하고 전도해서 어디로 보내나? 구역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는 구역 식사당번 봉사하는 사람이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 양육을 잘 해서 절대 헌신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한다.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경영, 치유상담, 취미활동도 해야 한다. 나라 사랑운동, 감사위원회도 해야 한다. 이제는 새마을운동까지 하게 생겼다. (웃음) 중국에 갔다왔는데, 지금 중국에 내적인 문제가 팽창해 많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했는데 방법이 한국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느냐 했는데 세계복음화전도협회에 맡기자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해오고 있다. 동기 가진 사람은 잘 못 한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준비된 자들이 우리에게 큰 문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해 나라 살리는 큰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복음 가진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빠지는 것, 섭섭한 것이 어디 있다. 욕심부릴 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다. 복음은 있어도 복음회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나 중심이 되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는 것이다.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기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다. 왜 여기에 전도와 기도가 관련성이 있는가?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다. 해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증거하려고 하니 까 거스르는 것이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충만해야 한다. 복음을 먼저 누리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이다.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류목사님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도로 모든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지금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비주의로, 종교로 성장해 왔다. 그러니까 착각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 하려고 싸운다. 기본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이게 한국 교회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

### 1. 전도란 무엇인가?

(1) 생명운동이라고 했다. 누룩같은 것이다. 참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계속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넘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가정도 현장도 다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이 있으면 생명운동, 전도운동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쉬운 것 이어야 한다.

(2) 능력운동이다.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 계속 말씀 전하면 개인도 가정도 다 치유되게 되어 있다. 거듭나게 되어 있다.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 나는 누구든지 내가 계속 같이 있으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목회자니까 그렇게 일일이 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나가서 그 일을 똑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 변화되어 버려야 한다. 그것부터 치유되어야 한다. 전도가 너무 소중하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영접 이후에 해야 할 첫 번째 치유다.

(3)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만 바라본다. 여러분은 그 이상으로 전도와 선교를 사랑하시기 바란다. 여러분, 전도는 생각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 온다. “전도하고 싶어?” “네,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생각만 들어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전도를 연구하고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① 기도도 전도도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고 기도일지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8:18-20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15-20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여러분이 집중에 참여하고 현장에 참여해 보라.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진다. 선교 현장에 가 보라. 기도하면서 가 보라. 선교현장으로 가시기 바란다.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증거할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②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행1:4-5, 기다리면 된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행1:14,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혼자서 안 된다. 함께 모여서 다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행4:29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앓은뱅이를 일으켰는데 더 큰 핍박이 왔다. 그런데 이들이 실망하지 않았다. 말씀의 성취라고 보았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히려 모여서 빌기를 다했는데 무리가 다 성령충만을 받았다. 핍박이 왔는데 다시 모여서 기도했다. 다시 성령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가 다시 정비해서 전도운동에 힘쓰게 되기를 바란다.

## 2.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하다.

(1) 확신이다(행1:4-7).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언제 부흥하고 언제 역사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응답의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당면, 필연, 절대적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의 문, 전도의 문, 경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남자만 5천 명이 일어나는 부흥이 와 버린 것이다. 준비하라. 절대목표를 두고 기도하라. 그리고 꼼꼼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24, 25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기를 축원한다. 확신이다. 여러분도 메시지를 전할 때 나의 증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오기도 전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

(2) 방황이다(행1:8).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3) 그러면 당연히 목표가 보인다(행1:8, 미28:18). 땅 끝, 모든 족속이다. 우리는 다른 꿈을 꿀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다른 목표, 꿈은 필요없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만 찾으면 된다.

## 3. 사단(마귀)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마귀는 전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승리하

게 되어 있다.

(1)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전도다(행4:1-4). 마귀는 자기가 이 땅의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쳐들어가는 것이다.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그래서 훈련으로 무장해야 한다. 어설프게 건드리면 더 당한다.

(2)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오직 예수다(행4:12).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적그리스도를 만들고, 이단을 만든다.

(3)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증거가 일어나야 한다(행4:22).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이혼하려 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청소년이 치유되고, 직장이 살아야 한다. 증거가 있으면 쉬워진다.

(4)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행4:25-26).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완전복음이 되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악 가지고는 그들의 악을 못 이긴다.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 거듭나야 한다. 오히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참된 성공이다. 큰소리 치면 진다. 다 양보하면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주신다.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 4. 시험 당할 때의 기도 (행4:29-30)

시험,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 행 4:29-31, 그들은 핍박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담대히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것이다. 총회도 무엇도 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핵심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 것이다. 나머지 ‘저것’ 들은 이 일에 기스나지 않도록 잘 하면 된다. 일단 하지 말고 생명운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 5. 기도의 결과 (행4:31)

이렇게 기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 결론

우리 교회의 천명목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모든 족속, 땅 끝이다.

(1) 그런데 이번 WRC에서 말씀하셨다. 5분 기도하라고 했다. 지금도 눈 감고 한 번 해 보자. 호흡으로 기도해 보자. 성령충만, 세계복음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학교 가서는, 5분 만 해 보라. 아니, 1분 씩 세 번만 해도 된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길이다.

(2)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8미션의 문을 여는 것이다.

(3)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전도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현장을 어렵지 않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4) 이들이 현장에 집중해서 받은 응답이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이었다. 이들이 당연히 삶 속에서 21가지 삶을 누렸다.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의 삶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도 전도자의 삶, 로마서 16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집중훈련을 받으시기 바란다.

(5)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캠프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천명완성, 천명무패, 천명필승으로 가야 한다. 천명을 받은 자는 완성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300지교회, 300다락방, 300현장을 가야 한다. 내가 한 군데라도 가는 캠프현장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단 한 군데라도 다락방, 지교회를 해야 한다. 없으면 한 곳이라도 캠프를 가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하철 역마다 나가서 책 나눠주면서 전도한다. 신앙 등급에 따라서 현장전도 나가는 서약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런 서약 안 해도 현장 나가게 되시기를 바란다. 나는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다. 저렇게 성실하고 착한데, 우리 성도들한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할 것인데, (웃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한다. 그런데 지옥가지 않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자원하여 종이 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데 맞추시기 바란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